

## 삼성어린이박물관

-만지면서 배워요, 느끼면서 알아요

정 규 봉\*

### 1. 어린이박물관이란?

우리나라 유일의 어린이박물관인 삼성어린이박물관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어린이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전통적인 박물관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어린이박물관은 1899년 브룩클린 어린이박물관을 선두로 올해 100주년을 맞는 역사가 깊은 박물관의 한 형태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들의 학습형태를 고려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박물관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전시되는 주제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용대상에 의해 그 특성이 정의되는 곳이다. 전통적인 박물관은 주제에 따라 미술품, 과학 전시품, 골동품 등을 전시하여,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으로 칭하지만, 어린이박물관은 아동과 가족이 오는 곳으로 그 특성이 정의되며, 주제는 어린이를 둘러싼 주변 세계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오늘날 전통적인 박물관들도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식 코너를 확산하고 있으니 이제 어린이박물관은 그 특성에서 차별화되지 않을 날이 곧 올 지도 모르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존의 박물관들이 체험식 영역을 마련해 어린이와 가족을 유치해 간다면 어린이박물관은 다른 특성으로 어린이박물관의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린이박물관의 특성을 전통적인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다음의 4가지로 구별하여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접적, 체험적 경험
- 공간구조(Space Frames)
- 맥락내의 학습(Learning in Context)
- 정서반응을 끌어내는 전시품

이상의 차이 외에 어린이박물관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점은 박물관내에서의 성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에게는 준비된 학습환경 외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성인이 있을 때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발달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와같이 어린이박물관은 일방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하는 어린이의 학습과정과 효과에 초점을 맞춰 책임있는 교육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결과와 이론을 박물관 현장에 접목시키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삼성어린이박물관 현황

우리나라 유일의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박물관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바르게 정립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어린이박물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초기 몇년 동안의 어린이박물관 종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없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관 초기에는 여러 면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의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들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흥미롭고 교육적인 체험식 전시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거듭하였다.

또한 열심히 고안한 전시품들이 탐색과 실험을 통해서 보다는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주제에 관한 교육 이전에 공공질서에 대한 교육이 앞서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전시품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의 주된 특징인 체험식 전시를 마련하고 전시품이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보수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전시업체의 애프터서비스 기능 강화는 물론 박물관내에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이를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다. 또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박물관 교사와 부모들에게 성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린이들의 교육을 촉진시키도록 격려하는 일도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어린이박물관은 1995년 5월 개관한지 3년 4개월만에 백만명 돌파라는 업적을 낳았고, 규모(총면적: 1,000평, 전시면적: 700평)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3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회원만 해도 거의 2,000명에 달하는 인기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삼성어린이박물관의 운영현황을 개관 이후 만 4년 동안의 전시와 교육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전 시

삼성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탐구와 표현'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9개의 전시영역에 80여개의 체험식 전시품과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탐구능력을 기르기 위해 인체탐험, 과학탐구, 멀티미디어 탐구, 사회와 문화 비교영역을, 표현능력을 기르기 위해 신체표현과 도전, 아트워크숍, 어린이방송국, 자유표현 영역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유아를 위한 영역도 제공하고 있어 12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 놓았다.

계속 성장변화하는 어린이들의 발달에 발맞춰 변화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매년 대체전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 신규전시품을 선보인 바 있다. 개관 당시의 전시품들은 외국 전시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나 네 번의 대체전시 모두는 국내의 전시업체와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낸 산물들이다. 관람객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끈질긴 감수와 지속적인 전시품개발과정을 거쳤고, 관람객들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작동상태 불량, 혹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나 흥미를 덜 유발시키는 전시품들은 과감히 철수하기도 하였다.

관람객들은 더 자주 전시품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전시품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되는 일이어서 기대와 욕심만큼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시업체들의 제작기술과 자재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만족한 전시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함께 노력하여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

박물관교육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과 성인들을 위한 것으로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은 전시품을 보완하는 교육과 전시품이외의 내용을 특별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담아 교육시키는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전시장내에서는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있으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활동지는 퀴즈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최근 어린이박물관이 중시하는 역할인 “Taking The Museum Home”을 실천하여 가정과의 연계학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방학기간 중에는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거나 특별교육을 위해 시연이나 실험을 제공하는데 학습 테이블을 별도로 마련하여 TV와 자력 실험, 자유낙하운동 관찰 등을 실시하여 생동감있는 전시장이 되도록 하곤 한다.

어린이박물관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골라 비형식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시작되어 관람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점차로 확대해갔는데,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박물관 영역과 관련이 있어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박물관 방문을 유도하고 교육에 보다 강조점을 두면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7개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기간	특징
박물관학교	방학 중 3일	방학기간 중 3일에 걸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됨
토요미술학교	10주	각종 전시장을 방문한 후 다양한 미술작업으로 이어지는 활동
사진교실	6주	사진에 대한 이론, 사진찍기, 현상, 인화하는 암실 작업 경험을 포함함
과학교실	8주	실생활과 밀접한 과학원리에 초점을 맞춘 재미있는 실험활동
영상제작학교	8주	시나리오, 콘티 작성, 촬영 및 편집과정을 거쳐 한 편의 영상물을 만듦
열린연극학교	8주	연극적 요소를 삽입하여 자기표현 및 놀이 위주의 활동 전개
영유아놀이학교	12주	미술작업, 신체표현, 요리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수업

이 외에 단체견학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전방문을 유도하고 견학을 준비시키는 안내문을 발송하며 방문시 견학일지를 제공(초등학교 대상)하여 가족단위로 방문했을 때보다 교육효과가 떨어짐을 인식하고, 줄지어 다니는 견학에서 벗어나 소그룹으로 성인(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교육은 부모들에게 박물관에 와서 어린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일종의 부모교육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 입구에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문구와 오리엔테이션 영역 기둥에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커다랗게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교사가 부모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도록 격려하고 촉구하며, 함께 활동하는 성인 모습의 본을 보여준다.

개관초기에는 성인들이 어린이들을 박물관에 데려온 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놀게하고 성인은 성인대로 따로 있기를 위하여 성인 휴게실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부모들이 전시장 한 구석에서 누워 자거나 앉아서 조는 경우를 흔히 보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박물관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람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박물관 교사 및 자원봉사자

박물관이 교육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교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시장내에는 8명의 교사가 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교육과 매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에 60~7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1일 5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방학 중에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면서 실제 도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이들에게 자원봉사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장으로 사용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가족문화 프로그램(이벤트)

가족문화 프로그램은 소이벤트로서, 전시품과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더 이상의 변화를 꾀하기 어려워 개관 이듬해부터 실시해 온 어린이박물관의 자랑거리이다. 어린이박물관은 회원의 경우 거의 매주 혹은 2주에 한번씩 오는 다방문 관람객들이 상당수 있다. 헛수를 거듭하면서 교육적이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문화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는 일요일이면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묻기도 하고 일부러 그것을 보러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매월 주제를 새롭게 바꾸어 다채로운 재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 소식지인 「우리끼리」에 그 내용을 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관 이후 실시해 온 프로그램중 인기있었던 주제로는 '인형극 축제', '프랑스 아동도서전', '재미있는 음악여행', '세계문화 체험', '다양한 직업' 등이 있고, 99년 5월에는 '즐거운 우리집' 이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출판활동

박물관 소식지인 「우리끼리」를 격월로 제작(8,000부)하여 이벤트 및 전시장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소식지는 전시장에 비치하여 일반관람객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과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박물관 소식을 알리고 있다.

전시물 안내서인 「삼성어린이박물관」, 「우리문화 발견 시리즈」, 「우리문화 놀이카드」 등을 발간하였고, 박물관에서 미술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작품을 소재로 엽서를 제작하고 있다.

## 3. 맺 음 말

삼성어린이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덕분에 꾸준히 조금씩 발전되어 왔다. 학계에선 학계대로 새로운 교육의 장에 대한 기대로, 관람객들은 관람객대로 삼성이 하는 일이니 과잉 기대로, 교육을 아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박물관이 생겼다는 이유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동안 보여준 관심과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린다.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아직 너무나 미흡한 것이 많다. 어린이들에게 환상적인 꿈과 실제적인 지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전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기획을 세워 나가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이박물관의 확산이 절실히 요구된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박물관의 양적 팽창이 어려우면 전통적인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체험식 코너를 마련하면 어떨까? 미래를 짚어질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